

관왕묘 의례 복식의 변천과 문화콘텐츠화 방안

박 가 영

송의여자대학 디자인계열 패션디자인전공 전임강사

The Changes of Ceremonial Costumes of the *Guan Yu* Shrine and the Method for their cultural contents

Ga Young Park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Soong Eui Women's College
(투고일: 2011. 10. 31, 심사(수정)일: 2011. 12. 31, 게재확정일: 2012. 2. 23)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better understand the *Dongmyo*, the Eastern Shrine of *GuanYu* and the military costumes of the Joseon period and to develop different cultural contents. By studying relevant literature, confirmations were made about the various types of costumes and their historical changes.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the ceremonial conductors often wore armors, and the king wore a different military costume.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thereafter, the ceremonial costumes were codified in the book, the *Chun-gwan tonggo* (General Outline for the Ministry of Rites), along with the costumes for the musicians and lower officials. However, the military features were weakened in the late Imperial Joseon years. In terms of costumes, it would be best today to restore the ceremonies of the Shrine of *Guan Yu* during the period of King *Jeongjo*. All the costumes for different figures of the Shrine are clearly confirmed, and by emphasizing the main features of the ceremonials of the Shrine, it is possible to differentiate the ceremony from other restoration activities in Korea. For the *Guan Yu* statue, the hat is square shaped and decorated with nine bead strings, it is dressed with a red dragon coat and a violet inner coat. This study presents methods for the restorations of the original costumes for the individual figures of the ceremonials, with necessary theoretical explanations. The king wears the lamella gold armor, while different ceremonial officials wear differentiated armors according to their different ranks. All the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who attend the ceremony wear military clothes with horse's mane hats and swords. The musical conductor and directors are expected in armors and participating musicians also have to wear armors according to the *Akhak Gwebeom* (Basics of Music).

Key words: armours(갑주), cultural contents(문화콘텐츠), Joseon dynasty(조선시대), military costume(군복), the *Dongmyo*(동묘), the shrine of *GuanYu*(관왕묘)

I. 머리말

관왕묘(關王廟)란 중국 촉한(蜀漢)의 장수이자 전쟁의 신(神)으로 인식되는 관우(關羽)를 모시는 사당이며, 관왕묘 의례는 무안왕(武安王)으로 추존된 관우에게 제사를 올리는 예식이다. 유교적 문치주의를 지향했던 조선왕조에서는 무묘(武廟)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임진왜란 때 관우의 영령이 왜병을 격퇴시켰다고 믿는 명나라 장수들의 요청으로 관왕묘를 설치하게 되었다. 설치 이후 유지 관리만 해오던 관왕묘는 숙종대 이후 영조와 정조를 거치면서 국왕에 대한 의리와 충절을 권장하고 군사권을 국왕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왕권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된다.¹⁾ 그 후 관우는 재물(財物)의 신(神)으로 여겨져 민간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서울 및 전국 각지에 다수의 관왕묘가 건립되었다.

조선시대 굉장히 많은 수의 길례(吉禮)가 행해져 왔지만 독제(蠶祭)와 더불어 관왕묘 의례는 무관(武官)들이 주관하여 진행했던 독특한 의례이다. 특히 이 의례를 진행하고 참석한 이들은 갑주(甲冑)와 용복(戎服)을 착용하였기 때문에 관왕묘 의례 복식에 대한 연구는 무관복식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조속오례의』, 『춘관통고』, 『대한예전』 등 예전(禮典)에 있는 관왕묘 의례의 의주(儀註)와 관련 기록들을 중심으로 하고 실록(實錄)과 등록(謄錄)을 보충자료로 삼아 관왕묘 의례 복식의 변천 및 각각의 복식이 지니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의궤(儀軌)와 『악학궤범』, 『무예도보통지』, 『만기요람』, 『용원필비』, 그리고 궁중기록화와 복식 유

물들을 살펴보고 관왕묘 의례 복식을 콘텐츠로 삼아 이를 재현하고 공연 의상화하는 방안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정성들여 행했으나 이제는 잊혀지고 사라져버린 궁중의례 중 하나를 다시 찾는 노력이며 다방면으로 활용가능한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다. 최근 한국 전통복식을 문화콘텐츠로서 접근하여 지역축제에 활용하거나 디지털화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관한 연구²⁾가 증가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옛 것을 찾아 고증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살펴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문화상품화 기획단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동묘(東廟)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동묘라는 문화제 안에 우리 선조들의 옛 이야기를 담아내는 스토리텔링의 바탕을 마련하리라 기대한다.

II. 관왕묘 의례 복식과 변천

1. 관왕묘 의례별 복식

『춘관통고』에는 6종류의 관왕묘 관련 의주(儀註)가 기록되어 있다. 춘추향관왕묘의, 작헌관왕묘의, 전배관왕묘의, 왕세자작헌관왕묘의, 왕세자전배관왕묘의, 왕세손전배관왕묘의가 그것이다.³⁾ 각 의례의 복식을 살펴보면 행사의 내용과 주관자에 따라 복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식은 의례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복식을 기준으로 순서를 바꾸어 <표 1>로 정리했다.

<표 1> 관왕묘 의례의 종류와 참여인원에 따른 복식

의례	복식	왕/왕세자/왕세손	제관(齊官)	종친, 문무백관	비고
春秋享關王廟儀	-	-	甲冑	-	봄·가을에 관왕묘에 향사하는 의식
酌獻關王廟儀[今儀]	甲冑	甲冑	甲冑	戎服	왕이 직접 관왕묘에 잔을 올리는 의식
王世子酌獻關王廟儀[今儀]	甲冑	甲冑	甲冑	戎服	왕세자가 관왕묘에 잔을 올리는 의식
展拜關王廟儀[今儀]	戎服(+插羽)	-	-	戎服+插羽	왕이 직접 관왕묘에 참배하는 의식
王世子展拜關王廟儀[今儀]	戎服(+插羽)	-	-	戎服+插羽	왕세자가 관왕묘에 참배하는 의식
王世孫展拜關王廟儀[今儀]	戎服(+插羽)	-	-	戎服+插羽	왕세손이 관왕묘에 잔을 올리는 의식

춘추향관왕묘의는 봄과 가을, 즉 경칩(驚蟄)과 상강(霜降)에 관왕묘에 향사하는 의식으로, 제사를 집행하는 제관(齊官)은 갑주(甲冑)를 갖추어 입고 의례를 행한다. 작헌관왕묘의는 왕이 직접 관왕묘에 잔을 올리는 의식으로, 왕은 갑주를 갖추고 제사를 집행하는 모든 제관 또한 갑주를 착용하나 제사에 참석하는 종친과 문무백관은 용복(戎服)을 입었다. 왕세자 작헌관왕묘의는 왕세자가 관왕묘에 잔을 올리는 의식이며, 왕이 올린 작헌관왕묘의와 마찬가지로 왕세자와 제관은 갑주를, 참석한 백관은 용복을 갖추었다. 전배관왕묘의는 왕이 직접 관왕묘에 참배하는 의식으로, 왕은 용복을 갖추어 입고 깃을 꽂았다[插羽], 함께 가는 백관은 용복에 검(劍)과 활, 화살[弓矢]을 패용하고 깃을 꽂았다. 주목할 점은 왕이 출궁 시에는 용복에 깃을 꽂았다가, 재배례(再拜禮)를 행할 때에는 용복만 입고, 환궁 시에는 다시 용복에 깃을 꽂았다는 점이다. 왕세자전배관왕묘의는 왕세자가 관왕묘에 참배하는 의식이며, 왕세자는 용복을 갖추어 입고 깃을 꽂고, 종친과 문무백관 등도 용복에 깃을 꽂는다. 왕세자 역시 왕의 기록처럼 출궁과 환궁 시에는 용복에 삼우한 차림이고 재배례를 행할 때에는 용복만 갖추었다. 왕세손전배관왕묘의는 왕세손이 관왕묘에 잔을 올리는 의식으로, 왕세자전배관왕묘의와 동일하되 인물만 다르게 배치되었다. 즉 인물만 바뀔 뿐 나머지는 같다고 하였으니 복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었다.

〈표 1〉을 보면 관왕묘 의례의 복식은 크게 작헌(酌獻)과 전배(展拜)의 2가지로 구분된다. 『춘관통고』의 의주를 보면 작헌은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 의례이고 전배는 절만 하는 의례로 작헌보다 간단한 절차로 구성된다. 작헌과 관련된 의례는 춘추향관왕묘의·작헌관왕묘의·왕세자작헌관왕묘의로서, 제사의례를 주관하고 집행하는 인물은 갑주를 갖추고 그 외에 의례에 참석한 인물은 용복을 착용하였다. 이로써 관왕묘 의례에 있어서 갑주가 용복보다 격식있는 복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배와 관련된 의례는 전배관왕묘의·왕세자전배관왕묘의·세손전배관왕묘의로서, 기본적으로 용복을 갖추고 깃을 꽂은 차림이다. 이는 아마도 의례의 내용 중에 출궁과 환궁의 절차

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레[輿]와 말[馬]을 타고 내리는 일이 많아 동작이 간편한 용복을 착용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작헌과 전배에서의 복식이 갑주(甲冑)와 용복(戎服)으로 구성된 것은 관왕묘가 무묘(武廟)였음을 드러낸다. 문묘(文廟)의 작헌례에는 왕이 면복(冕服)을 갖추고 이동 중에는 원유관에 강사포를 갖추었으며⁴⁾, 다른 궁(宮)으로 출궁·환궁·전배 때에는 곤룡포(袞龍袍)를 입었다.⁵⁾ 이처럼 전쟁의 신인 관우를 모실 때에는 그 성격에 맞는 복식을 갖추었으며, 재배례(再拜禮)로 예를 최대한 갖추었다. 즉 조선의 왕이 다른 나라 제후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읍례(揖禮)면 충분한데 굳이 무릎을 꿇고 절하는 배례(拜禮)까지 해야 하는지 논쟁이 있었으나 숙종 대에 배례를 하도록 결정하면서 이후 왕까지도 관우묘에 재배를 하였다.⁶⁾ 재배례를 행할 때에는 관모에 꽂아 장식한 새깃을 제거함으로써 관우(關羽)와 관우묘(關王廟)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다. 관모인 종립(纒笠)에 꽂았던 새깃은 행행(行幸) 중에는 꽂고 있되, 능(陵)이나 원(園)을 배알하는 동안은 왕과 신하 모두 깃털을 뽑는 것이 정례였기 때문이다.⁷⁾

2. 관왕묘 의례 복식의 변천

관왕묘 의례 복식이 『춘관통고』에서처럼 정리되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변화하였다. 임진왜란 중 명나라 장수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처음 관왕묘가 세워진 이래 전국 각지에 관왕묘가 건립되었고, 숙종대에는 국왕에 대한 의리와 충절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 관왕묘의 배례 절차를 정하였으므로⁸⁾ 복식도 어느 정도 상례화되었으리라 추측되나 기록에서 발견되는 것은 영조대부터이다.

1) 영조대의 관왕묘 의례 복식

탕평책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붕당 간의 갈등을 줄이려 했던 영조는 관왕묘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영조 22년(1746) 관왕묘 의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조(禮曹)에 복색(服色)과 의주(儀

註)를 물었더니 마땅히 곤룡포(袞龍袍)를 착용해야 한다는 답을 듣는다.⁹⁾ 며칠 뒤 영조는 남관왕묘와 동관왕묘에 가서 곤룡포와 익선관을 갖추고 재배례를 행하였다.¹⁰⁾ 하지만 관왕묘 의례에 항상 곤룡포를 착용한 것은 아니었다. 『국조오례의』에서는 배례할 때 출궁과 환궁 모두 익선관과 곤룡포를 착용하도록 정해져 있었으나, 언젠가부터 왕이 출궁 시에는 익선관·곤룡포를, 환궁 시에는 용복(戎服)을 착용하고 말을 타는 게 전례가 되었기 때문이다.¹¹⁾ 영조 29년(1753) 왕이 의소묘(懿昭墓)에 거둥하거나¹²⁾ 영조 40년(1764) 친제(親祭)를 행한 후 환궁하면서 관왕묘에 들러 재배례(再拜禮)를 행하였다.¹³⁾ 관왕묘 의례 복식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환궁하는 길에 들렀기에 용복 차림이었으리라 추측된다.

영조 35년(1759)에는 의릉(懿陵)에 전배한 후 관왕묘에 들른 영조가 갑주를 갖추어 군례(軍禮)를 행하고 돌아온 일로 대사헌 황경원의 지적을 받았다. 관우가 아무리 충의가 있다 하더라도, 왕이 한(漢)나라 제후에 불과한 관우에게 갑주를 갖추어 입고 그 앞에서 군례를 행한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였다.¹⁴⁾ 영조대 동관왕묘와 남관왕묘에서 제사를 올릴 때 헌관(獻官) 이하의 갑주를 갖추고 의례를 행하도록 하였던 것¹⁵⁾을 보면 갑주는 관왕묘 의례에서 가장 격식을 갖추고 관우를 높이는 복식이었다. 따라서 예조의 입장에서 왕이 마땅히 입어야 할 곤룡포 대신에 갑주를 갖춘 것은 조선의 왕이 다른 나라 제후에게 읍례(揖禮) 대신 배례(拜禮)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법에서 벗어나는 일로 여겼던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영조 52년(1776)에도 30년 전과 비슷한 상황, 즉 관왕묘 복색을 예조에 물어 알아본 후 정하는 일이 되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¹⁶⁾ 영조 22년 예조에 복색을 물었던 이는 영조 자신이었으나, 영조 52년에는 왕세손이 대리청정을 하던 시기이므로 정조가 왕위에 오르기 한 달 전에 관왕묘 복색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영조대까지는 재배례만 올렸을 뿐 전작례로 왕이 몸소 제사를 올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복색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왕세손이 대리청정을 하면서 친행하여 전작하는 의례를 구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러한 구상이 실제화되고 명문화된 것이 정조대의 『춘관통고』이다.

2) 정조대의 관왕묘 의례 복식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조는 관왕묘 의례 및 복색을 격상시키겠다는 대리청정 시의 계획을 실천으로 옮겼다. 정조 2년(1778) 노량(驚梁)에서 대열례(大闕禮)를 행할 때¹⁷⁾, 그리고 이듬해에 정조가 남한산성 행궁에 행행하면서¹⁸⁾ 군례(軍禮)에 앞서 동관왕묘에 전배례를 올렸는데 이때 군례의 복색은 갑주이고 출궁과 환궁의 복색은 용복이었다.

정조대 관왕묘 의례 복식이 가장 집약적이고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문헌은 정조 12년(1788)에 편찬된 『춘관통고』이다. 왕이 파견한 신하가 주관하여 연 2회 향사를 올리는 춘추향관왕묘의는 이전부터 행해지던 의례였지만, 왕·왕세자·왕세손이 직접 올리는 나머지 5가지 의례들은 ‘금의(今儀)’라는 주(註)가 달려있어 정조대에 새로이 정비된 의례였음을 알 수 있다. 영조대까지는 왕이 친행하여 전작한 적이 없었는데, 정조대에 이르러 친행하여 잔을 올리는 작헌의(酌獻儀)와 출궁하여 재배례를 행하고 환궁하는 전배의(展拜儀)를 추가한 것이다. 각 의례에 따른 복식은 이미 <표 1>에서 제시한 바 있다.

정조는 각 의례별 의주를 통해 왕, 제관, 문무백관의 복색을 정비했을 뿐 아니라 정조 5년(1781)에는 제사에 관한 일을 맡은 하급관리인 수복(守僕)의 복색을 정비하고¹⁹⁾, 정조 10년(1786)에는 악장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동관왕묘·남관왕묘의 악공(樂工)들이 모두 갑옷을 입도록 명하였다.²⁰⁾

영조대와 정조대의 관왕묘 의례 및 복색을 비교해 보면 관왕묘 의례를 승격시키고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정조의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난다.

첫째, 관왕묘 의례를 소사(小祀)에서 중사(中祀)로 격상시켰을 뿐더러 선왕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논리로²¹⁾ 왕이 직접 제사를 올리는 작헌관왕묘의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왕이나 왕세자가 직접 제사를 올리는 제관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²²⁾ 공식적으로 갑주를 착용하도록 명문화하였다.

둘째, 이전에는 왕이 곤룡포나 용복 차림으로 전

배를 했다면, 정조대에는 갑주를 갖추고 작헌을, 융복을 갖추고 전배를 행했다. 정조는 관왕묘 의례에서 의 왕의 복색을 의례별로 명확히 정비하였다.

셋째, 관왕묘 의례에 5가지의 의례를 추가 신설하여 『춘관통고』의 의주로 역할별 복색과 절차를 정리했고, 주요인물이 아닌 하급관리와 악공이 복식에도 관심을 가져 의례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품격을 높이고자 했다.

넷째, 환궁 시 관왕묘에 들르던 것을 출궁 시 관왕묘에 먼저 들러 전배의를 행하였다. 정조는 군례를 행하러 가는 길에 먼저 동관왕묘에 들러 재배례를 행함으로써 배종하는 문무백관들의 충의를 다짐하고 결속시키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3) 현종대의 관왕묘 의례 복식

관왕묘 의례의 실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사료로는 『의주등록(儀註謄錄)』, 『치제등록(致祭謄錄)』, 『제등록(祭謄錄)』 등이 있는데 『의주등록』 중 현종 13년(1846)으로 추정되는 관왕묘 의례 복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왕이 남관왕묘에 친행하여 전작을 올릴 경우[南關王廟奠酌禮親行儀], 왕은 갑주를 갖추고 제관인 제향관(諸享官)도 갑주를 입었으며 제사에 참석할 백관[陪享官]은 융복을 갖추었다.²³⁾

한편 똑같이 남관왕묘에 친행하여 전작을 올릴 때라도 전작례를 마치고 바로 모화관으로 옮겨 서충대에서 시사할 경우[南關王廟奠酌禮親行仍詣慕華館瑞慈臺試射時出還宮儀]에는 관왕묘 의례의 복식이 달라졌다. 남관왕묘에 도착하여 전배할 때에는 출궁 시의 복색 그대로 왕은 융복에 삼우를 갖추고 종친과 문무백관도 계속 융복 차림이다. 이후 관왕묘를 떠나 모화관으로 이동하여 시사례(試射禮)를 행하고 환궁할 때까지 왕은 의례 절차에 따라 군복(軍服)과 갑주로 갈아입은 반면, 문무백관은 모든 의례를 진행하는 동안 융복 차림을 유지한다.²⁴⁾

양자의 복식은 각각 정조대 『춘관통고』의 작헌의와 전배의를 닮아있다. 동일한 시대와 장소, 동일 기록에서의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한 결과, 관왕묘 의례의 복식은 의례를 독립적으로 행하는지 또는 다른

의례와 결합하는지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독 행사이면 『춘관통고』의 의주를 지켰지만 다른 군례와 결합된 행사로 진행되면 전체 이동거리나 의례의 상대적 중요도 등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4) 대한제국시기의 관왕묘 의례 복식

『대한예전』에 관왕묘 의례는 중사(中祀)로 구분되어 있는데²⁵⁾, 이는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황제급의 중사이므로 이전보다 승격된 의례이다. 관왕묘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황제나 제관, 문무백관의 복식에 관한 기록은 없어 의례의 승격으로 인한 복식의 변화 양상을 살필 수가 없다. 다만 관왕묘 등가를 기록하면서 악기와 깃발별 배치도가 그려져 있고 전악, 악사, 악공의 복식을 병기하였다.

관왕묘 의례 악사의 관복은 사모(紗帽), 흑단령(黑團領)이고 전악은 복두(幞頭), 녹초삼(綠綃衫), 오정대(烏鞞帶), 흑피화(黑皮靴)이며 악공은 화화복두(畫花幞頭), 홍주단령(紅紬團領), 남사대(藍紗帶)를 착용하였다.²⁶⁾ 『탁지준절』에도 전악 복식 중에 모라복두와 녹초삼과 오정대가, 악공 복식 중에 화화복두와 홍주로 만든 단령 등이 기록되어 있어 관왕묘 의례 악인 복식은 국말의 상당히 보편적인 모습이었음이 확인된다.²⁷⁾ 정조대에는 갑주를 착용했던 제향악공이 어느 시점부터인지 일반적인 악공복색을 갖추으로써 시대가 내려오면서 의례의 '무(武)'적인 성격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관왕묘 의례 복식의 공연의상화 방안

1. 대상 시기의 선택

특정 의례를 고증 재현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문제는 시기를 선택하는 일이다. 의례는 시대가 내려오면서 그 내용과 형식이 변화하기 마련이고, 특히 복식은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기에 시대에 따른 변천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보았던 관왕묘 의례 복식의 변천을 <표

〈표 2〉 신분별 관왕묘 의례 복식의 변천

시기	신분	의례	왕	제관	종친, 문무백관	악인		
영조대		재배례	곤룡포	갑주	-	-		
정조대		전작례	갑주	갑주	응복	갑주		
		재배례	응복(+삽우)	-	응복+삽우	-		
헌종대		전작례	갑주	갑주	응복+패검	-		
대한제국시기		-	-	-	-	전악	악사	악공
						복두, 녹조삼, 오정대, 흑피화	사모, 흑단령	화화복두, 홍주단령, 남사대

〈표 3〉 關羽像 복식 관련 기록

시기	출처	복식	보수 내용
숙종29년(1703) 계미 6월	『춘관통고』	홍포, 평천관	부금(付金) 떨어진 곳 보수
영조15년(1739) 기미 5월	『영조실록』	용포(龍袍)	神像의 龍袍를 고쳐지으라 명함
영조22년(1746) 병인 8월	『영조실록』	용포	동·남관왕묘의 龍袍와 左右 塑像 보수
영조43년(1767) 정해 2월	『영조실록』	용포	동·남관왕묘의 龍袍를 새로 비치
영조43년(1767) 정해 2월	『춘관통고』	용포	동관왕묘에서 새로 마련
영조44년(1768) 무자 정월	『춘관통고』	용포 안에 받쳐 입은 자적토주 창의(靛衣)	남관왕묘 關王의 파손된 창의 수리

2)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복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조대의 관왕묘 의례를 재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첫째, 인물별 복식이 명확히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관왕묘 의례에 참여하는 인물은 크게 왕(왕·왕세자·왕세손), 제관, 종친과 문무백관, 악인(전악·악사·악공)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표에서의 공란(空欄)은 결국 관련 자료를 새로이 발견하거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논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채워야 하는 부분인데, 〈표 2〉를 보면 정조대에서만이 공란이 없다.

둘째, 다양한 의례의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춘관통고』의 의주가 의례별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예산 및 장소, 시간 등의 재현 환경에 따라 6가지 의례 중에서 융통성있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관왕묘 의례의 성격을 극대화시켜 다른 재현행사들과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왕묘 의례는 무신들이 무복(武服)을 입고 무묘(武廟)에 올렸던 독특한 제사였으며, 유교적 문치주의를 지향하던 조선시대에 특별한 의례였음이 분명하다. 왕과 제관

은 물론이고 악장(樂章)을 올리는 악공에 이르기까지 갑주를 착용함으로써 의례 전체에서 갑주 착용 비율이 최대인 시기는 바로 정조대이다. 또한 정조대 의례 중에서도 작헌관왕묘의(酌獻關王廟儀)가 의례의 성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관왕묘의 격을 높이는 이상적인 의례라 하겠다.

2. 關羽像의 복식

관왕묘 의례는 의례에 참여하는 인물 뿐 아니라 관우의 신상(神像)도 복식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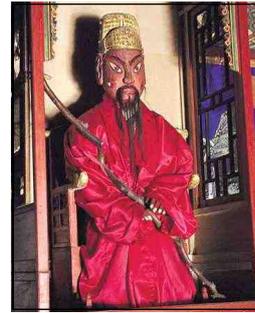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신상의 복식은 채색하지 않거나 목조상 위에 채색을 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춘관통고』나 『영조실록』의 문헌을 보면 〈표 3〉에서처럼 관우상에는 옷을 실제로 제작하여 입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관왕묘 관우상(關羽像)의 복식은 홍색(紅色) 용포(龍袍)에 평천관(平天冠)을 쓰고 용포의 안쪽에는 자적색(紫的色) 토주(土紬)로 만든 창의(靛衣)를 받쳐 입었다.



〈그림 1〉
동관왕묘 관우상1
- 심승구 촬영



〈그림 2〉
동관왕묘 관우상2
- 심승구 촬영



〈그림 3〉
강화도 관우상
- <http://www.histopia.net>



〈그림 4〉
안동 관왕묘 관우상
- <http://www.doopedia.co.kr>



〈그림 5〉
중국 關林的 관우상1
- <http://songij21.egloos.com>



〈그림 6〉
중국 關林的 관우상2
- <http://blog.daum.net>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관왕묘의 신상들은 서로 다른 형식과 구조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동관왕묘의 관우상은 모두 황색 포(袍)와 황금익선관 등 황제로 추존된 상태의 관우상이다. 대전(大殿)에 있는 관우상<그림 1>은 12류가 달린 평천관을[12旒冕] 쓰고 흰색 한삼이 달린 황색 단령포를 착용하고 있다. <그림 2>는 유비, 장비와 함께 있는 관우의 상으로 황금익선관을 쓰고 흰색 한삼이 달린, 조악하게 제작된 황색 단령포를 입었다. 평천관에는 먼지가 많이 쌓이고 형태가 변형되어 위엄이 떨어진다. 정조대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왕을 상징하는 홍색 용포를 입혀야 한다.

강화도의 관우상<그림 3>²⁸⁾은 홍포(紅袍)이지만 용포(龍袍)가 아니고 관모도 평천관이 아니다. 안동 관왕묘의 관우상<그림 4>²⁹⁾은 조각상에 채색으로 관

모와 복식을 표현하고 긴 수염만을 입체적으로 붙여 주었다. 홍색으로 표현한 점은 타당하나 홍포 속에 자적색 창의를 입어야 하는데 갑옷을 착용한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관왕묘의 복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입혔기에 동관왕묘나 남관왕묘의 재현품으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하다.

관우는 중국의 장수이고 관왕묘 또한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강요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므로 관우의 복식은 중국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중국의 수많은 관우상 중에서도 관우의 수급(首級)이 묻힌 곳으로 유명한 낙양(洛陽)의 관림(關林)에 있는 관우상을 살펴 보고자 한다. 관림의 대전(大殿)에 있는 관우상<그림 5>³⁰⁾은 12류가 달린 평천관을 쓰고 황색의 중국식 용포를 착용한 모습이다. 황색과 12류는 모두 관우가 죽은 후에 황제로 추존된 복식임을 증명한다.

〈그림 6〉³¹⁾은 관우가 살아있을 때 갑주를 착용한 장수의 모습으로 표현한 조각상으로 갑주 차림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정조대 관왕묘 신상의 복식은 관우가 죽은 후 왕으로 추존된 형상으로, 머리에는 9류를 늘어뜨린 평천관을 씌우고 홍색의 중국식 용포(龍袍)를 착용하되 용포의 안쪽에는 갑옷이 아닌 자적색 토주로 만든 창의(幟衣)를 입히면 된다.

IV. 관왕묘 의례의 인물별 복식 재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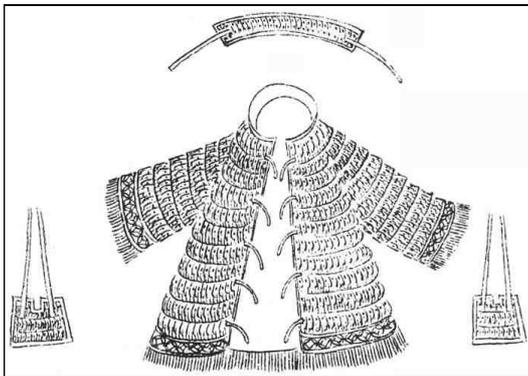
정조대의 관왕묘 의례 복식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각 인물별로 착용할 복식의 목록과 함께 복식 재현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현할 복식을 참여인물별로 확인해보면 왕의 갑주(甲冑), 제관의 갑주, 종친과 문무백관의 용복(戎服), 전악·악사·악공의 갑주로 정리된다. 고증복식을 공연의상으로 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형태와 치수 등에 관한 논의는 후속연구로 미루고, 본고에서는 갑주와 용복으로 이루어진 정조대 관왕묘 의례 복식을 공연화하는 기본 원칙들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하려 한다.

1. 왕의 갑주 : 금갑(金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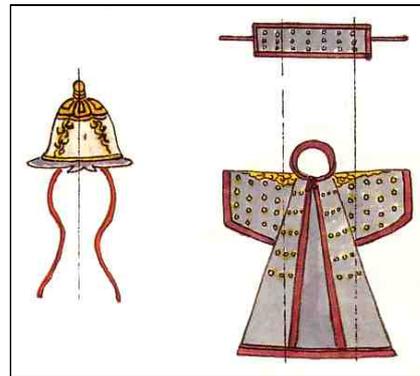
조선시대 궁중기록화에서 왕의 모습이 생략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임금의 초상화인 어진도 갑주본(甲冑本)은 없기 때문에 왕이 착용한 갑주의 형태와 구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원래 군례를 행할 때 왕이 착용하는 어갑주(御甲冑)는 금갑(金甲)으로 규정되었고³²⁾ 정조는 화성행행 때 활쏘기를 마친 후 상으로 자신의 금갑을 지방관에게 하사하기도 하였다.³³⁾ 금갑은 유물이나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구조를 파악할 수가 없다. 하지만 금색을 내기 위해서는 갑옷 표면이 직물이 아닌 금속이나 금도금을 한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합당한 구조는 직사각형 갑찰 조각을 가로로 연결한 후 다시 세로로 연결한 찰갑(札甲) 형식이며, 조선시대 찰갑은 『세종실록』〈그림 7〉³⁴⁾, 『국조오례의』, 『춘관통고』에 수은갑(水銀甲) 혹은 갑(甲)을 들 수 있다.

『정조국장도감의궤』(순조 즉위년, 1800)〈그림 8〉³⁵⁾에는 정조가 평상시 착용한 갑주가 그려져 있어 두정(頭釘)과 금속장식품을 금(金) 혹은 도금한 갑옷을 금갑이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조선 전기 『국조오례의』(성종 5년, 1474)에서 두정의 재료가 황동, 백은으로 만든 갑주를 두정갑(頭釘甲) 또는 두두미갑(頭頭昧甲)이라고 했고, 의궤와 비슷한 시기의 기록인 『만기요람』(순조 8년, 1808 무렵)의 수많은 명칭 중에서 두정의 색이나 재료를 기준으로 명명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정조의 금갑을 〈그림 8〉의 두정갑 형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전존하는 갑주 유물은 왕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석으로 만든



〈그림 7〉 갑옷
- 세종실록



〈그림 8〉 갑옷과 투구
- 정조국장도감의궤

두정과 장식품이 금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장수의 갑주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연의상으로는 찰갑 형식의 금갑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제관의 갑주 : 서열화시킨 갑옷

정조대 관왕묘 의례의 제관(齊官)은 헌관, 집례, 대축, 축사, 묘사, 재랑, 찬자, 알자, 찬인, 장생령, 전사관, 감찰이 있는데³⁶⁾ 이들을 품계에 따라 서열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제집사(諸執事)로도 기록된 제관은 의례를 집행하는 이들로써,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복식으로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정조대 갑주의 서열을 알려줄만한 사료는 없기 때문에 『만기요람』에 군영(軍營)별로 기록된 다양한 갑주들³⁷⁾을 정리하여 갑주의 서열을 추출한 후, 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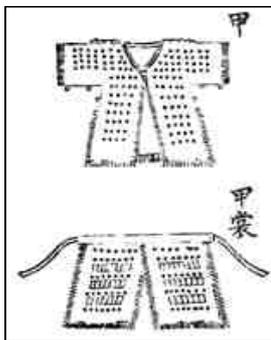
들을 몇 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갑주를 연결시켜 주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조대 갑주의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는 『무예도보통지』(정조 14년, 1790), 『정조국장도감의궤』(순조 즉위년, 1800)가 있고 이후의 『용원필비』(순조 13년, 1813)도 참고할 수 있다. 직물로 옷을 만들고 안쪽에 갑찰 조각을 댄 후 못[頭釘]으로 고정하는 방식은 일치하지만, 『무예도보통지』의 갑옷은 <그림 9>³⁸⁾와 같이 위와 아래가 분리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그림 10>³⁹⁾의 《수원능행도 8곡병》에 보이는 갑주는 상하가 붙어있으므로 <그림 11>⁴⁰⁾의 가죽갑옷[皮甲]으로 제작한다.

조선 후기 갑옷 유물을 보면 <그림 12>⁴¹⁾처럼 갑찰이 안갑과 겉갑 사이에 들어간 갑옷은 대부분 비

<표 6> 『春官通考』에 기록된 齊官의 서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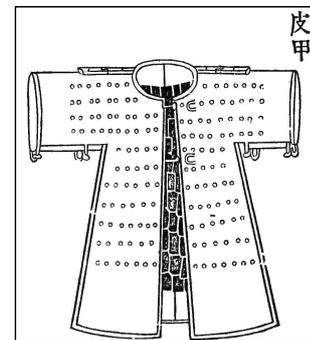
제관(齊官)	서열
헌관(獻官)	무장(武將)
집례(集禮)	무관 4품
대축(大祝)	무관 5품
축사(祝史)	무관 5품
묘사(廟司)	훈련원 봉사(奉事)
재랑(齋郎)	무겸(武兼)
찬자(贊者)	훈련원 습독(習讀)
알자(謁者)	훈련원 습독(習讀)
찬인(贊引)	훈련원 습독(習讀)
장생령(掌牲令)	훈련원 습독(習讀)
전사관(典祀官)	훈련원 습독(習讀)
감찰	-



<그림 9> 馬藝冠服
- 무예도보통지



<그림 10> 《수원능행도 8곡병》에 보이는 갑주
- 필자 촬영



<그림 11> 가죽갑옷
- 용원필비



〈그림 12〉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두정갑옷
- 韓國의 甲冑, 도판 40.



〈그림 13〉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피갑
- 韓國의 甲冑, 도판 32.

단이나 전(氈) 등 고급직물로 만들었다. 반면에 가죽으로 만든 갑찰이 안쪽에 달려 노출되는 피갑(그림 13)⁴²⁾은 옷길리와 소매길리가 더 짧고 먹으로 문양을 찍은 면직물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를 이용하여 제관 갑옷의 높고 낮은 서열을 표현해 줄 수 있다.

3. 종친과 문무백관의 융복 : 홍색 철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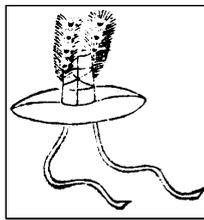
종친과 문무백관이 의례에 착용한 융복은 철릭[帖裏, 天翼]을 입고 종립(鬃笠, 駿笠)을 쓴 후 검(劍)을 차는 차림이다.⁴³⁾ 평상시에는 종친과 문무백관이 융복에 검만 패용하였고 왕을 배종하는 백관은 융복

에 검과 궁시까지 갖추었다.⁴⁴⁾ 융복의 관모인 종립에는 공작깃털[翠羽]이나 호수(虎鬚)를 꽂아 장식하게 하였다. 종립의 재료는 제주도에서 조달된 말갈기였기 때문에⁴⁵⁾ 공급이 한정적이어서 사치품목이었고 금지령이 끊이지 않았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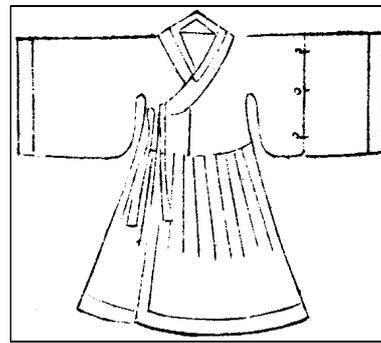
영조 22년(1746)에 간행된 『속대전』에 “당상관의 융복은 남색 철릭에 자립(紫笠), 당하관은 청현색에 흑립(黑笠)으로 하며, 왕이 교외로 행차할 때에는 홍색으로 제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관왕묘 의례에 배참하는 종친과 문무백관은 모두 자립에 홍색 철릭을 착용해야 한다. 자립은 자색 종립(紫色 鬃笠)으로 당상관에게만 허락된 관모이며 왕을 배종하거나 호위할 경우에 썼다.⁴⁷⁾ 〈그림 14〉⁴⁸⁾의 《화성능행도



〈그림 14〉 《화성능행도병》의
홍색 철릭
- 조선시대 풍속화, p. 23.



〈그림 15〉 종립
- 무예도보통지



〈그림 16〉 홍색 철릭
- 무예도보통지

병》(1795)에 그려진 문무백관들은 모두 홍색 철릭을 착용하고 있다. 정조대에 융복으로 착용했던 중립<그림 15>⁴⁹⁾과 홍색 철릭<그림 16>⁵⁰⁾은 『무예도보통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익정(李益正, 1699- 1782) 묘에서 출토된 철릭 등 정조대의 철릭 유물이 남아 있으므로 형태와 치수 등을 참고하여 재현 가능하다.

이처럼 기록으로도 회화로도 모든 종친과 문무백관이 자색 중립에 홍색 철릭을 착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공연의상화할 때 모두 똑같은 색의 똑같은 옷으로 재현하기는 쉽지 않다. 조선 전기로 올라가면 초록, 남색, 주황, 유청(柳靑), 압두록(鴨頭綠), 회색, 백색, 도홍(桃紅) 등 다양한 색상의 철릭에 관한 기록이 나오지만, 조선 후기에 왕을 따라 참여하고 호위한 백관의 철릭은 대체로 홍색이었다.⁵¹⁾ 따라서 여러 색을 쓰기는 곤란하지만 관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 철릭의 소재를 변화시킬 수는 있다. 정조대에 당상관과 당하관의 복색을 정리하면서 옷감의 종류만 기록⁵²⁾한 것으로 보아 신분을 표현한 요소는 철릭의 색이 아니라 소재였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당상관은 문(紋), 단(緞), 사(紗), 라(羅)의 견직물로, 당하관은 명주[紬]나 무명, 모시, 삼베로 구별하여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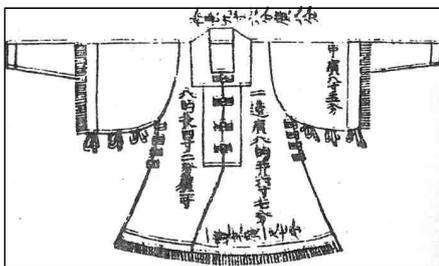
4. 악인의 갑주 : 오색단갑(五色段甲)과 황화갑(黃畫甲)

조선 후기 전악(典樂), 악사(樂師), 악공(樂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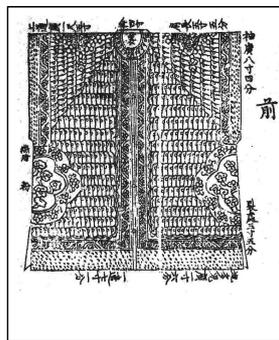
악인(樂人)이 갑주를 착용한 모습을 찾기는 어렵지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악학궤범』에서 성종대 악인이 착용한 갑주를 찾을 수 있다. 물론 무관이나 군졸과 동일한 갑주를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실제 갑옷을 입고 악기를 들고 연주하거나 춤을 추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별도의 갑옷을 입었으리라 여겨진다. 의장물도 여기(女技)의 것은 노부의장(鹵簿儀仗)의 의장물보다 작고 가볍게 만들기 때문이다.

『악학궤범』의 갑옷은 오색단갑과 황화갑의 2가지가 있다. 오색단갑<그림 17>⁵³⁾은 정대업을 추는 여자들이 입는 오방색의 비단 갑옷으로 형태는 네모난 것이 달려있고 여밈이 겹쳐지지 않는 합임이다. 황화갑<그림 18>⁵⁴⁾은 회례연(會禮宴)과 아악(雅樂)의 무무(武舞) 공인이 입은 갑옷으로 걸감은 황초(黃紬)로 만들고 안감은 홍주(紅紬)로 만들며, 갑옷 조각의 형태를 채색하여 그렸다. 정대업을 추는 여자들이 오색단갑과 함께 썼던 투구<그림 19>⁵⁵⁾는 조선 초기 차양이 있는 철투구[簪冑]의 구조와 동일하나 무용을 위한 복식이므로 철 대신 천으로 만든 후 특징적인 장식만 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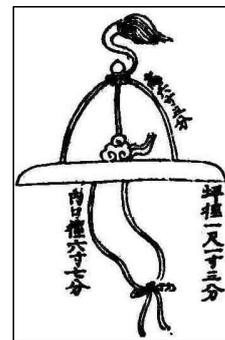
『대한예전』의 관왕묘등가 배열도인 <그림 20>⁵⁶⁾을 보면 역할에 따라 오방기를 든 악공과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의 2가지로 나뉜다. 이에 <그림 2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황룡기·청룡기·백호기·주작기·현무기의 오방기(五方旗)를 든 악공이 황·청·백·홍·흑의 오색단갑을 입고 방위를 맞춰 서고, 그 사



<그림 17> 五色段甲
- 악학궤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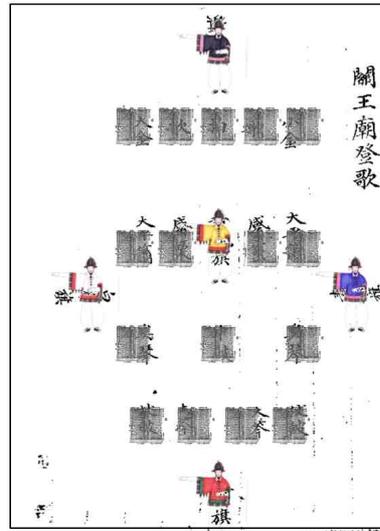
<그림 18> 黃畫甲
- 악학궤범



<그림 19> 투구
- 악학궤범



〈그림 20〉 關王廟登歌
- 대한예전



〈그림 21〉 오색단갑과 황화갑
가상배치도
- 필자 작성

이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16명의 악공은 황화갑을 입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헌기록 속의 다양한 갑주를 소개하여 관람객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화려하면서도 조화로운 배색으로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한다.

V. 맺음말

보물 제142호인 동묘(東廟)의 정식 명칭은 동관왕묘(東關王廟)로서, 관왕묘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의 요구로 처음 건립되었고 이후 청나라에서도 관우묘 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명과 청에 대한 사대주의의 산물이라는 인식, 일제에 의해 보물로 지정된 점 때문에 치욕의 역사유물로 여기는 시선이 있었다. 그러나 숙종대 이후 봉당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사권을 국왕중심으로 변환시켜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관왕묘가 활용되었다는 역사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관왕묘라는 문화재에 대한 바른 이해와 평가를 위해서도, 또 잊혀졌던 역사적 진실을 찾아내어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관왕묘와 관련된 의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조선 후기 능

행이나 군례와 결합하여 자주 들렸던 동묘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관왕묘들은 현재 소극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나 관왕묘 의례가 연구된다면 묘(廟)라는 장소를 배경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의례를 재현하고 공연형식으로 제작하여 참신하고 차별성 있는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왕묘 의례 복식에 대해 '고증 분석'과 '콘텐츠화 및 재현 방안'의 두 가지 접근을 시도하였다. 먼저 문헌기록으로부터 관왕묘 의례의 종류별 복식을 확인하고 복식의 변천을 고찰하였다. 영조대에는 관왕묘에 제사를 올리는 현관만 갑주를 갖추고 왕은 곤룡포에 익선관을 갖추어야했으나 실제로는 용복을 착용한 경우가 많았다. 정조대에는 관왕묘 의례를 승격시키면서 의례를 신설, 정비하여 『춘관통고』에 명문화하였는데 춘추향관왕묘의와 작헌의(酌獻儀)에는 왕, 왕세자와 제관(齊官)은 갑주를 갖추고 문무백관은 용복을 착용했다. 전배의(展拜儀)에는 모두 용복을 입고 종립에 깃을 꽂았는데[插羽] 전배를 올리는 동안 깃을 뺐다. 정조는 관우묘 악장을 만들고 제향악공들에게 갑주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하급 관리의 복식까지 단정하게 관리했다. 정조대 이후로

는 『춘관통고』의 복색제도를 기본으로 전체 이동거리나 의례의 상대적 중요도 등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용되었다고 보인다. 대한제국 시기 『대한예전』의 기록으로부터 전악, 악사, 악공의 복식은 갑주가 아니라 일반적인 악공복색으로 변화한 사실로 보아 무묘에 제사지내는 무관적 성격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관왕묘가 군권 장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했고 관우가 재물신(財物神)으로 여겨져 민간신앙화했던 당시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관왕묘 의례 복식을 콘텐츠로 삼아 재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상 시기의 선택과 관우상(關羽像)의 복식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었다. 관왕묘 의례 복식의 변천을 정리한 결과 '복식'의 관점에서는 정조대의 관왕묘 의례를 재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인물별 복식이 명확히 밝혀져 있고, 다양한 의례의 재현이 가능하며, 관왕묘 의례의 성격을 극대화시켜 다른 재현행사들과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헌관왕묘'가 의례의 성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관왕묘의 격을 높이는 이상적인 의례라 하겠다. 또 관왕묘 의례는 참여인물 뿐 아니라 관우의 신상(神像)도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의 관우상의 복식은 정제되거나 통일된 모습이 아니었고 유지 관리가 잘 안되는 곳도 있었다. 정조대 관왕묘 신상의 복식은 관우의 사후 왕(王)으로 추존된 형상으로, 머리에는 9류(九旒)를 늘어뜨린 평천관(平天冠)을 씌우고, 홍색의 중국식 용포(龍袍)를 착용하되 용포의 안쪽에는 갑옷이 아닌 자적색 토주로 만든 창의(幟衣)를 받쳐 입히는 것이 타당하다.

갑주와 용복으로 구성된 관왕묘 의례 복식을 재현하는데 있어 참여인물별로 재현 방안과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군례를 행할 때 왕이 착용하는 어갑주(御甲冑)는 금갑(金甲)으로, 『정조국장도감의궤』의 갑주 구조로는 금갑을 제작할 수 없으므로 『국조오례의서례』 등에 수은갑(水銀甲) 혹은 갑(甲)으로 기록되어 있는 찰갑의 갑옷조각을 금도금하거나 금칠을 하는 방식을 제안해본다. 둘째, 제관(齊官)에게는 서열화된 갑주를 착용하게 하여 재현행사 진행에 신분의 고하를 가시화하고자 한다. 우선 제관들을 품계 순서로 나열한 뒤 『만기요람』의 동일 병영 내 갑

주들을 서열화하여 선택한다. 갑주의 구조는 『용원필비』의 갑주를 따르되 유물의 형식, 직물소재, 문양 등을 적용시켜 신분의 고하를 표현한다. 셋째, 종친과 문무백관이 의례에 착용한 용복은 철릭을 입고 종립(驥笠)을 쓴 후 검(劍)을 차는 차림으로, 『무예도보통지』와 정조대의 철릭 유물을 참고하여 재현 제작할 수 있다. 넷째, 전악과 악사의 갑주는 제관의 갑주 중 하급관리의 갑주를 선택하여 악공에 비해 품위를 갖추고, 악공은 『악학궤범』의 오색단갑(五色段甲)과 황화갑(黃畫甲)을 활용한다.

관왕묘 의례는 제사를 올리는 대상이 장수(將帥)인 관우(關羽)이고 무관(武官)이 제관(齊官)이 되어 갑주(甲冑)를 갖추고 향사를 올린 의례이기 때문에, 복식문화사적 입장에서는 조선시대 무관 복식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연구대상이다. 또 착용상황으로 비추어 보아 길례(吉禮)와 군례(吉禮)의 접점에 있는 특별한 의례 복식이기도 하다. 다른 각도로 보면 관왕묘 의례와 그 복식 연구는 창작 소재의 원천이 되는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발굴이랄 수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다양한 조선시대 궁중의례들을 고증하여 소개하고 재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축적된다면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강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심승구 (2003), *조선 후기 무묘(武廟)의 창건과 향사(享祀)의 정치적 의미 - 관왕묘(關王廟)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박한남 외 편저, 서울: 집문당, pp. 446-447.
- 2) 조희진 (2010), *문화콘텐츠 속 전통복식 활용의 문제점과 고증의 필요성 - 지자체와 지역 축제의 캐릭터 복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5, pp. 299-344.
조효숙, 임현주 (2010), *전통복식 문화원형 콘텐츠의 디지털 활용 현황과 제언*, *복식*, 60(6), pp. 89-100.
박가영 (2010), 『순조무자진작의궤』에 나타난 궁중무용복식의 고증 및 디지털콘텐츠화, *한복문화*, 13(1), pp. 103-120.
- 3) *春官通考* (1788), 卷44, 吉禮 關王廟.
- 4) *正祖實錄*, 卷6, 正祖 2年 7月 甲寅.
- 5) *正祖實錄*, 卷8, 正祖 3年 10月 辛未.
- 6) *肅宗實錄*, 卷48, 肅宗 36年 3月 丁卯.
肅宗實錄, 卷50, 肅宗 37年 6月 癸未.

- 7) 園幸乙卯整理儀軌, 卷2, 儀註(附操式).
- 8) 심승구, *op. cit.*, p. 448.
- 9) 英祖實錄, 卷64, 英祖 2年 8月 乙酉.
- 10) *Ibid.*, 英祖 2年 8月 辛卯.
- 11) 光海君日記, 卷32, 光海君 2年 8月 丁酉.
- 12) 英祖實錄, 卷79, 英祖 29年 3月 丙寅.
- 13) 英祖實錄, 卷103, 英祖 40年 6月 庚寅.
- 14) 英祖實錄, 卷93, 英祖 35年 11月 己未.
- 15) 春官通考, 卷44, 吉禮 關王廟, 英祖 40年 6月 13日.
- 16) *Ibid.*, 吉禮 關王廟, 英祖 52年 2月.
- 17) 正祖實錄, 卷6, 正祖 2年 9月 戊子.
- 18) 正祖實錄, 卷8, 正祖 3年 8月 甲寅.
- 19) 正祖實錄, 卷11, 正祖 5年 1月 庚子.
- 20) 正祖實錄, 卷21, 正祖 10年 2月 戊寅.
- 21) 正祖實錄, 卷11, 正祖 5年 1月 庚子.
- 22) 정조가 곤룡포 대신 용복이나 갑주를 착용하고자 한 의도는 자신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관우와 관왕묘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국왕에 대한 충절과 의리를 강조하고자 한 것이고, 이러한 정치적 의도는 숙종이 음례 대신 배례를 고집한 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
- 23) 儀註曆錄, 續8, 南關王廟奠酌禮親行儀.
- 24) *Ibid.*, 丙午 9月 12日, 南關王廟奠酌禮親行仍詣慕華館瑞瑟臺試射時出還宮儀.
- 25) 大韓禮典序例, 卷1, 吉禮 中祀.
- 26) 大韓禮典, 卷4, 俗部樂懸圖說 關王廟登歌.
- 27) 度支準折, 45, 樂工服色, 度支部, 高宗代, 규장각 가람古 5127-3.
- 28) 자료검색일 2011. 10. 30, http://www.histopia.net/zbxe/?mid=sr&search_target=tag&search_keyword=%EA%B4%80%EC%9A%B0&document_srl=6880
- 29) 자료검색일 2011. 10. 30,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73427
- 30) 자료검색일 2011. 10. 30, <http://songij21.egloos.com/1448651>
- 31) 자료검색일 2011. 10. 30, http://blog.daum.net/_blog/ArticleCateList.do?blogid=0CONU&CATEGORYID=977822&dispkind=B2201#ajax_history_home
- 32) 世宗實錄, 卷25, 世宗 6年 9月 丙申.
中宗實錄, 卷82, 中宗 31年 8月 辛卯.
大東野乘, 卷53, 東閣雜記 上 本朝璿源寶錄 宣德 丙午年(世宗 8年,1426).
增補文獻備考, 卷109, 兵考.
- 33) 正祖實錄, 卷29, 正祖 14年 2月 辛酉.
- 34) 世宗實錄, 卷133, 五禮 軍禮 序例 兵器 甲.
- 35) (正祖)國葬都監儀軌, 二房儀軌, 明器秩 甲과 胄.
- 36) 春官通考, 卷44, 吉禮 關王廟.
- 37) 萬機要覽, 軍政編, 龍虎營 軍器 : 訓練都監 軍器 : 禁衛營 軍器 : 御營廳 軍器 : 摠戎廳 軍器.
- 38) 武藝圖譜通志, 卷4, 冠服圖說 馬藝冠服圖說.
- 39) 《수원능행도 8곡병》, 리움미술관 소장품, 규장각 복본, 필자촬영.
- 40) 戎垣必備, 甲胄.
- 41)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편 (1987), 韓國의 甲冑, 도판 40.
- 42) *Ibid.*, 도판 32.
- 43) 正祖實錄, 卷32, 正祖 15年 1月 己丑.
正祖實錄, 卷38, 正祖 17年 9月 乙卯.
武藝圖譜通志, 卷4, 擊毬冠服圖說.
- 44) 儀註曆錄, 續8, 丙午 9月 12日, 南關王廟奠酌禮親行仍詣慕華館瑞瑟臺試射時出還宮儀.
- 45) 顯宗實錄, 卷8, 顯宗 5年 3月 戊子.
- 46) 燕山君日記, 卷29, 燕山君 4年 6月 庚辰.
中宗實錄, 卷45, 中宗 17年 8月 乙酉.
明宗實錄, 卷15, 明宗 8年 10月 丙申.
- 47) 中宗實錄, 卷45, 中宗 17年 8月 乙酉.
正祖實錄, 卷38, 正祖 17年 10月 戊辰.
- 48) 국립중앙박물관 편 (2002), 조선시대 풍속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p. 23.
- 49) 武藝圖譜通志, 卷4, 冠服圖說 擊毬冠服圖說 繫笠.
- 50) *Ibid.*, 紅貼裏.
- 51) 영조대 『속대전』에서 홍색으로 규정되었고, 순조대에 홍색 칠릭이 금지되어 청색 모시 칠릭(靑苧帖裏)으로 바뀌었으나(純祖實錄 卷34 純祖 34年 5月 庚辰),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군사의 위용을 이유로 현종대에行幸할 때 당하관의 청색 칠릭을 다시 홍색 칠릭으로 입도록 하였다.(憲宗實錄, 卷9 憲宗 8年 9月 庚戌) 따라서 조선 후기 행행시 문무백관의 칠릭은 홍색이었다고 판단된다.
- 52) 正祖實錄, 卷38, 正祖 17年 10月 戊辰.
- 53) 樂學軌範, 卷8, 定大業呈才儀物圖說 五色段甲.
- 54) 樂學軌範, 卷9, 冠服圖說 黃畫甲.
- 55) 樂學軌範, 卷8, 定大業呈才, 儀物圖說 胄.
- 56) 大韓禮典, 卷4, 俗部樂懸圖說 關王廟登歌.